하나님의 공과 사 구분 허물기

(시편 138:1~8)

1.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2.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3.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과 사 구분 허물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공과 사 구분 허물기'
일본의 아베 수상의 인기가 승승장구하다가 한 사건을 통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 부지 매입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되어서 소동이 났었습니다. 인기가 좀 하락하다가 흔히 말하는 북풍몰이를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강경대응하고 남한에 대한 혐한의 감정을 고조시킴으로써 일본 국민들의 적을 내부에서 외부로 옮긴 것입니다. 이러한 북풍몰이는 성공적이어서 아베의 인기는 다시 70%까지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앞서 말한 사학비리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관계 공무원이 자살까지 하고 조세청에서 아베가 관여한 조작 문서가 발견되기까지 하여 다시 한 번 난리가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 공사구분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공사구분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조조합장이 친구라면 조합장이 된 후로는 사적으로 점심 한 번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속한 기분이 듭니다. 공사구분을 제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내 기분을 배려한 조합장이 결국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특정인을 편애하지 말라고 조합장을 욕합니다.
아버지가 서울시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자녀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가 가장을 원망합니다. 시장이 아닌 사람들도 자녀의 직장을 구해주려 각 방면으로 뛰어다닌다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위해 꼼짝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공사구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구분만 제대로 해도 우리나라에서 뉴스에 떠도는 모든 논란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식비나 의복은 말할 것도 없고 화장실의 휴지 같은 생필품조차 대통령의 사비에서 지출된다고 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도 공식적 만찬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구매한 그릇

을 사용하지만 대사가 개인적인 행사를 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기에서 직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회의 조직에서 개인이 맡은 직책의 이름이 직함입니다. 직함을 수행하는 것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공과 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도 직함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원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과 사의 구분을 허물고 우리에게 개입하실 수 있는 명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과 사의 구분을 허물게 하는 명분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공적인 관계에서 사적인 관계의 차원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공과 사가 분명히 나누어져서 공적으로만 관계하고 계신다면 그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제시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이방인의 모든 우상들을 포함합니다. 이것들과 구분되시기 때문에 주께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반부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라는 부분까지는 어렵잖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전'은 곧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기에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하반부 때문에 학자들 간에 옥신각신이 일어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도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학자들의 상식에서는 이 말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번역본을 보더라도 혼란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두고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NIV에서도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이 모든 것보다 높으시게 하셨다(for you have exalted above all things your name and your word)"라고 비슷한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본 개역성경과 KJV에서는 원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for thou hast magnified thy word above all thy name)"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바꿔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전반부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라고 했을 때의 '주의 이름'은 다윗이 인격적으로 관계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반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직함을 일컫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함은 간단히 말해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일컫는 직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만군의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무재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등이 모두 하나님의 직함입니다.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라는 하반부의 내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함은 곧 하나님의 공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사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15절을 보면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직함들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보다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다니는 모든 속성을 고려할 때에, 수없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다윗 개인의 입장이나 처지 따위는 소홀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적인 관계를 더 우선하시고자 하십니다.
들판에 핀 백합화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다 할지라도 특별히 대우할 이유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한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원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인 일들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나 한 사람에 대해 사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갖는 것은 요원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직함에 대해 어느 것 하나 게을리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수없는 피조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한 개인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다 이루시려고 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마치 모든 공적인 일보다도 다윗과의 사적인 일을 더 챙기시는 것과 같이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대통령의 아들이 심한 감기몸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상회담은 뒷전으로 미루고 아들을 방문하여 간호합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과 사가 구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과 사의 구분도 잊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다윗은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아들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이시는 감정은 취업은커녕 삶 전체에 대한 개입하심입니다. 다윗이 관여하지 못하는 세상일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느끼며 오늘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일견 비상식적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직함 앞에서 나는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만사를 제쳐두시고 나에게만 관심하시는 것만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민망하여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을 정도로 공과 사를 반대로 하십니다.
우리는 고위공무원들의 개입을 문제 삼습니다. 대통령이 그 직함을 가지고 주변인들의 인생에 개입한다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 직함을 이용하려는 주변인들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예 나와의 사적인 관계에 개입하시기 위한 본거지로 삼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시장쯤만 되어도 도시개발계획의 전모를 알고 주변에 정보를 제공해 이익을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동이 드러날 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개발계획을 시행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것들을 공식적인 직함보다 더 우선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2절 전반부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라는 말은 성전 바깥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에서 주의 이름은 성전의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인격의 상징입니다. 법궤에 들어있는 돌판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계획하시며 뜻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성소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곧 내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이는 이름

을 뜻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는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의 이름을 담습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대상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사의 구분을 허무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이름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는 우선 상번제의 번제단에서 어린양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함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마음을 죽이고 깨끗하게 부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과 사의 구분을 허무시고 내 삶에 개입을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을 꿈꾸는 것은 곧 왕의 자리가 자신의 생각이 법이고 진리가 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통치영역 안에서는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왕의 자리는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왕의 자리는 모든 이 세상의 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리였습니다. 세상의 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나에 대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왕들이 주께 감사하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왕에게는 명령할 수 없기에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세상의 말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음으로 인해 왕의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왕과 같은 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사장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이 만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의 말도 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리이고 기대하시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으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적인 영역에 개입하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본거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적인 영역은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적인 관계가 허물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삶의 일부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사시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사적인 관계로만 내 삶이 이끌려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이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공과 사의 영역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바람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압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사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연합에 참여할 때에 세상에서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고 전하는 저의 고민은 세상기준으로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언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바람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이자 최고 최선의 성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성과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만큼 높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보다 위대하고 성공적인 자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최고의 성공은 십자가에서 죽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된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벌 총수가 되었어도 성공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말씀입니다. 이 사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모든 공적인 직함에 우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시고자 모든 직함을 미루시고 십자가라는 사적인 사건을 통해 나를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성취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본문 5절 이하에서 다윗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을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적 관계를 청산하시고 사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삼으셨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당시에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다윗은 체험적으로 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과 사의 구분이 허물어질 수 있는 명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명분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의 궁극적 기쁨과 만족이 존재

하지 않음을,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마음을 향하게 하여 하나님만이 궁극적 기쁨과 만족되심을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과 사의 구분을 허무시도록 명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